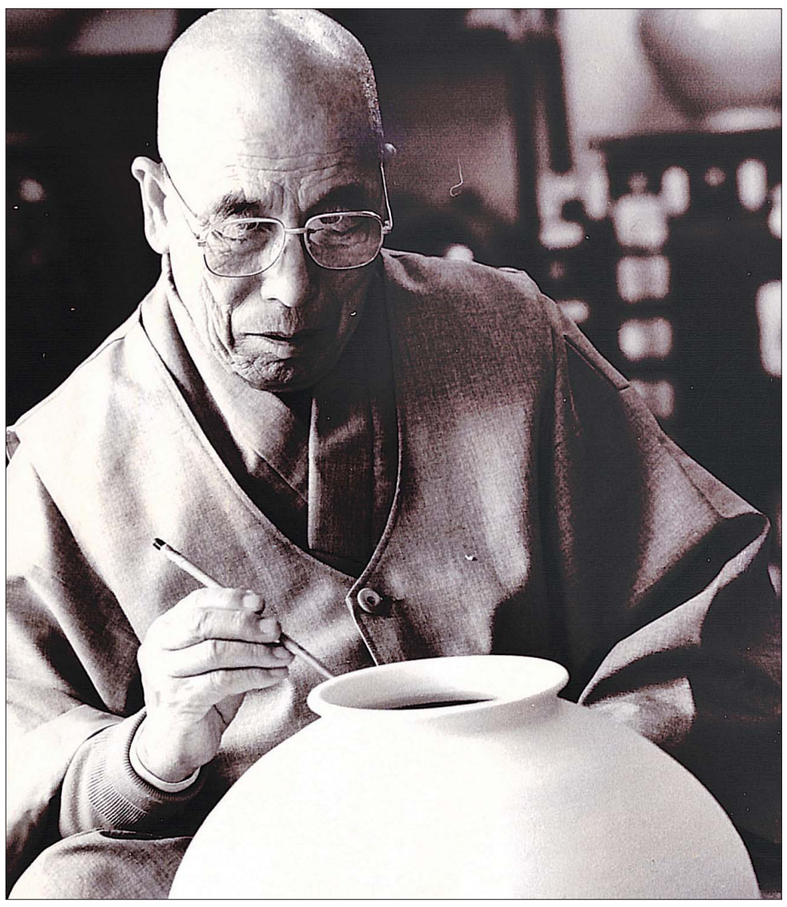


도자기에 글씨를 쓰고 있는 생전의 월하 스님.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특별전이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열린다.

월하 선사 수행가풍 한자리에

월하 대종사 탄신 100주년기념특별전 '영축산에 달 뜨거든'

"위로는 머리를 덮을 한 조각 기와도 없고 아래로는 발붙일 촌토(寸土)도 없도다. …비록 나와 함께 같이 태어났더라도 나와 더불어 함께 죽지 않겠노라."

조계종 9대 종정을 지낸 월하 스님이 1994년 종정 추대식에서 내린 법문이다. 통도사의 근현세 역사를 대표하는 월하 스님은 1933년 열여덟의 나이에 출가해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통도사 주지 · 조실, 조계종 총무원장, 조계종 개혁회의 의장, 영축총림 방장 등을 지냈으며 1994년 종정으로 추대됐다.

통도사 조실로 추대되어 보광전 별당에서 주석하면서도 시자를 두지 않고 손수 방청소는 물론 내복이며 양말 빨래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1992년 나눔의 집 건립기금 1억 5천만원을 남몰래 기부하기도 했으며, 통도사의 자비원과 성보박물관 건립에도 큰 도움을 준 일화는 감동적이다.

월하 대종사(1915~2003) 탄신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전시가 열린다. 기념특별전 '영축산에 달 뜨거든'이 5월 25일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 2층 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스님의 禪書 32점, 불상 1점, 가사, 발우, 은사 구하 스님으로부터 받은 전법게와 유훈, 선물로 받은 전각 등 총 215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통도사성보박물관 부관장 송찬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는 스님의 일대기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유품들과 생전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된다. 스님이 평소에 쓰시던 붓과 벼루 가사 등 스님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유품들이 전시돼 청정하고 검소한 삶으로 평생을 살다가신 스님의 자취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취지를 전했다.

특히 이번에 전시되는 안거증, 대교과 졸업증서는 물론 법계증서와 구하 스님의 유훈 등은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중덕 대덕 시험을 치르고 받은 법계증서는 1930년대 품계가 어떤 형식으로 주어졌는지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수행을 열심히 하라고 전한 구하 스님의 유훈에서는 스승과 제자인 두 스님의 돈독한 관계를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구하 스님이 1944년 영축산 통도사 대웅전에서 월하 스님에게 내린 법게도 눈여겨 볼만하다.

영축산 가운데 한줄기 매화가 있어
(靈鷲山中一莖梅)
천지가 나뉘기도 전에 꽃이 피었구나
(花開天地未分前)
이 꽃은 청 · 황 · 백에 관여치 않으니
(此花不管靑黃白)
겁밖에 봄빛은 변하지 않는 인연이라네
(劫外春光不變緣)

구하 스님은 법연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인연을 통도사에 매화에 비유해 법게에 담아냈다. 이밖에도 '현지우지(玄之又之)' '독보청천(獨步靑天)' '일념만년(一念萬年)' 등 스님의 명필도 감상할 수 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문화의 시대가 도래한 21세기에 이번 전시가 던져주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시간 정신문명을 주도해온 불교는 이제 문화의 삶을 주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3개월간 펼쳐지는 이번 유물전을 통해 불교계 전시가 다양화 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바람을 전했다.

발우 · 가사 · 禪書 · 사진은 물론
구하 스님 유훈 · 법계증서 등
시대상 알 수 있는 유품 주목
5월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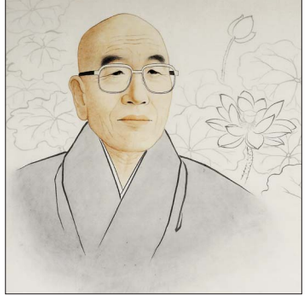
한편, 노천당 월하대종사 탄신 100주년 다례재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노천문도회(회장 성파)는 3월 25일 '탄신 100주년추모다례재'를 영축총림 통도사 보광전에서 봉행했다. 〈차주상보〉 이날 법회에는 월하 스님의 일대기를 소설화 한 〈영축산에 달 뜨거든〉(윤청광 저)도 봉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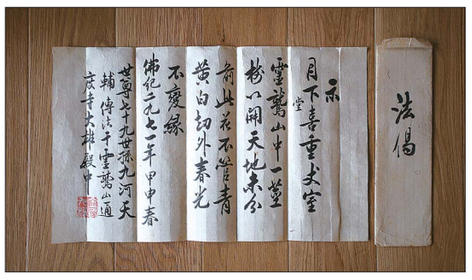
또한 '월하 스님의 계율을 통한 수행의 재조명'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이 직접 나서 '월하 스님의 정화불사' 기조강연을 했다. (055)382-7182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이번 전시에서는 스님의 유품 215점을 만날 수 있다. 시계방향으로 월하 스님의 글씨인 '일념만년', '통', 은사인 구하 스님이 내린 '법게', 스님의 진영

"꽃으로 피어난 구도의 여정"

정태궁 개인전 '꽃에게'
3월 31일까지 조계사 나무갤러리

선인장, 수세미, 작약, 수국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꽃들이 화폭으로 피어올랐다. 섭리를 찾아가는 구도의 여정을 꽃으로 표현한 정태궁 개인전 '꽃에게'가 3월 31일까지 조계사 경내 나무갤러리에서 열린다. 나무를 깎아 색칠을 한 조각 기법의 회화를 통해 작가는 자연의 섭리를 보여주고자 했다.

"해와 달, 별과 꽃 등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에 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조형적 실험을 통해 결국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로 모두가 생명의 원천임을 깨달았죠. 이런 경험을 꽃이라는 자연적 소재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작가는 나무를 깎아 색칠을 한 조각기법의 회화로 작품을 만들어낸다. 나무 판을 조각하고 그 위에 색을 입힌 후 대리석, 철근 등의 다양한 재료들을 덧붙여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다. 녹색 바탕에 나무의 원색을 살린 선인장 잎과 그 옆으로 활짝 핀 흰색의 선인장 꽃, 노랗게 세상을 밝히는 수세미 꽃, 붉은 등만큼이나 화려한 꽈리꽃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준다.

작가는 충남 서산에서 생활하며 자신이 보고 느낀 자연을 작품으로 담아내고자 했다. "폐교를 미술관으로 만들어 작업실과 미술관을 함께 하고 있어요. 주변에 보이는 것이 다 꽃이다 보니 꽃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선인장 꽃, 제비꽃 등 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꽃들을 통해 자연의 섭리와 우주를 담고자 했습니다."

재가수행자이기도 한 작가는 매일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 108배와 명상, 반야심경 독송 등 수행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지난해 10월에는 월정사 단기출가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기도 했다. "수행을 체계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단기출가를 했습니다. 당시 명상을 하다가 깊은 삼매를 경험해보기도 했어요. 내 몸이 사라지고 옴만 남은 상태를 경험한 것이지요. 또 월정사 전나무 숲 포행을 하면서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임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평생 수행이라는 것을 해나가야겠구나 하는 새로운 발심을 하게 된 계기기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앞으로도 꾸준한 수행을 통해 자연 속에서 보고 느낀 것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구도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다. (010)4412-8486 정혜숙 기자



섭리를 찾아가는 구도의 여정을 꽃으로 표현한 정태궁 개인전 '꽃에게'가 3월 31일까지 조계사 경내 나무갤러리에서 열린다.

"수무상형… 물은 형상이 없다"

동국대 교수 김대열 개인전 갤러리 한옥에서

"나는 자연 속에 있으며 자연은 나 속에 있다. 자연과 인간은 서로 부분적으로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는 서로의 근저에 있어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산은 산, 물은 물로서 내 눈앞에 있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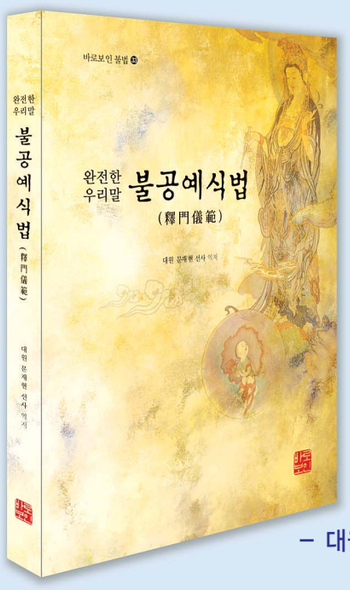
김대열 작가(동국대 교수)의 '수무상형… 물은 형상이 없다' 전이 3월 26일까지 종로구 가회동 갤러리 한옥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자연의 형상을 선적으로 표현한 수묵 작품 14점을 전시한다. (02)3673-3426 정혜숙 기자



자연의 형상을 깨달음으로 표현한 김대열 작가의 '수무상형'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5번째 저서 출간!

신간!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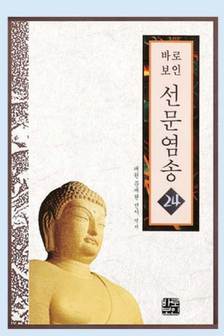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4권 출간!
운문 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33종 65권의 저서 출간!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